

# 무안군, 건조한 봄철 산불예방 대비태세 돌입

## 봄철 산불 조심기간 운영으로 산불예방 총력

무안군(군수 김산)이 최근 바짝 건조해진 기후 속에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군은 종합대책본부 구성을 위해 일찍이 지난 1월 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30명 선발하고 기존 산림사업장 관리요원과 함께 산불 대응인력 36명을 기동단속반 5개조로 편성해 설 연휴부터 가동했다.

본격적인 산불 조심기간이 시작되는 2월 1일부터는 군청과 각 읍면에 봄철 산불상황실을 설치해 전 직원 1/4이 근무하며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삼향읍과 해제면에는 진화대원 각 3명씩 별도 배치시켜 원거리 산불발생시 현장에서의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산림연접지(100m) 주변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및 개별소각 행위 금지 캠페인 등 홍보 활동과 집중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통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임차 헬기를 운영기로 하는 등 산림청·전남도 및 무안소방서와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단순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산림피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뒤따르게 되므로 군민들께서도 산행 간 흡연 금지는 물론 농촌지역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협조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최근 바짝 건조해진 기후 속에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 신안군, 종합청렴도 3등급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민권의 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신안군이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73.6점)을 받았는데 외부 체감도에서는 90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85.1점) 대비 4.9점 높았으며, 내부체감도는 59.6점으로 전국 군 평균(58.6점) 대비 1.0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신안군은 2022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평가 항목인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전국 군 대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원인분석하고, 2023년에는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등 부족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상승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신안군' 구현을 위해 청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 강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홍보

강진군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에 나서며 불법주정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 신고제가 도입돼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특히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차량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진군은 5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홍보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강진읍 시가지 교통 무질서를 근절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무인카메라 4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시행중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단속시간 동안 30분 이상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해당돼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상권 활성화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의 주차단속 유예시간으로 지정해 주차단속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강진중앙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전운재 기자

## 영암군, 청년 문화복지카드 20만 원 지원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영암군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2월 한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비를 1인당 연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소가 있는 19세 이상 28세 이하(1995년~2004년생) 청년이다.

단, 복지포인트를 제공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수혜자, 전남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등은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차액인 9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 신청 또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의 카드신청 팝업창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자격 요건 등 확인을 거쳐 4월중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며, 전남 도내 공연, 도서구입, 체육, 관광 등 문화복지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가능하다.

/박성태 기자

## 함평,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함평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지역 농업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영농 신기술 보급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초 실시된다.

특히 올해 실용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대면교육으로 실시돼 지역 농업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방점을 두고 식량작목(벼)과 양념채소(고추, 양파, 마늘) 등 2개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춰 품목별 핵심재배기술과 스마트팜 신기술 등을 소개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농정 이슈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 등을 제공한다. /서용운 기자

## 목포, 시내버스 비상수송차량 증차·증회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행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비상수송차량 운행 전세버스의 운행횟수를 증회하고, 노선을 확대·운영한다.

시는 태원·유진 시내버스회사의 가스비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비상수송차량을 오는 2월 1일부터 12대 증차한다.

현재 11개 노선(1번, 1A번, 2번, 6번, 9번, 11번, 13번, 15번, 20번, 33번, 60번) 63대를 운행중에 있으며, 증차에 따라 75대를 운행하게 된다.

운행 횟수도 증회된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5개 노선(1번, 1A번, 9번, 20번, 60번)은 배차간격을 단축해 운행하며, 정류장 정차 정시성 준수를 위해 운행시간표를 개선한다.

2-1번 노선은 신설된다. 학생 등 학교 이동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옥암·부주~항도여중~영흥중~정명여중~목포여중을 경유하게 된다.

용해지구~동부시장~고하도를 운행하고 있는 33번 노선은 연장된다. 용해지구에서 신항만~현대삼호아파트까지 운행돼 신항만과 현대삼호아파트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태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